

# 목포대 “태양광·풍력 연구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광역 인재사업 유치 매진

지리적 이점 최대한 활용 기술인력 배출

목포대학교가 전국 최고의 일사량,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내세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에 나선다.

목포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이하 광역권 인력양성사업)을 확정·공고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해상 풍력 등) 사업을 따내기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밸率达到 대응하고 있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광역권 인력양성사업’은 광역권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4년제 지방대학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천억원(총 5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6개 광역권 선도산업은 노후권의 신재생에너지산업·친환경부품소재산업·충청권(의약바이오·New IT), 동남권(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대경권(IT·융복합·그린에너지), 강원권(의료융합·의료관광), 제주권(물·관광레저) 등이다.

인력양성사업을 담당할 대학은 선

도산업별로 1~2개 대학을 포함해 총 2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5년간 매년 학교당 50억원 내외 규모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과 우수한 인적 구성을 토대로, 이미 지난 해 11월 인력양성사업 유치를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동작하고 있다.

특히 목포대는 풍력 및 태양에너지, 해양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남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5년 전부터 진행시켜 왔다.

또 지난 2004년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기술센터 사업(24억2천만 원) 유치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학의 특성화 육성분야로 설정·육성해왔다.

이와 함께 목포대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2월 ‘광역경제권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대학의 발전전략’에 관한 포럼을, 3월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상호협력협약식 및 포럼’ 등을 개최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앞으로 광역권 인력양성사업 기관으로 선정되면 ‘목포대 선도산업(해상풍력 관련) 인재 양성센터’를 설치해 선도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반 구축, 기업 기반의 창의적 교육 및 연구시스템 구축, 선도 산업 산·학·연·관 융합체제를 실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일사량과 해상의 바람자원, 수심 5~20m의 리아스식 해안(7천km) 등 태양광·풍력발전 등에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국의 27.2%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300여개 태양광업체가 전국의 45%인 136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스코건설 등이 1천 16mw 용량의 풍력발전소를 건설중이다.

한편 광역권 인력양성사업은 오는 5월 말에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농가 애로사항 청취

장태평(오른쪽에서 두번째)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김용화씨의 과수원을 방문해 노관규 순천시장 등과 함께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다. 정 장관은 한국벤처농업포럼 참석차 순천시를 방문했다.

(순천시 제공)

# ‘노후車 교체’ 취·등록세 70% 감면

1999년 말까지 등록차량 … 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 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

을 폐차 또는 약도해야 한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

지이다. 지원액 한도는 국세인 개별

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가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씩 모두 250

만 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천 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른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애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방안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 담금 면제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친환경 유기농 벼 소득도 높다

기존 농법보다 1ha당 200여만원 많아

친환경 유기농법을 실천한 벼 농가의 소득이 기존 관행농법으로 벼를 생산한 농가보다 1ha당 200여만 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의 벼 생산지 각각 210ha에서 나온 생산량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기농의 경우 기존 관행농법보다 생산량은 다소 적었으나,

판매가격은 월등히 높고 판로도 안정적이어서 농가소득을 크게 증대시켰다.

유기농 210ha의 논에서 생산된 벼의 양은 980t으로 10a당 평균 647kg, 40kg들이 3만3천968포대를 생산했다.

이는 기존 관행농법에서 생산된 벼 10a당 평균 672kg, 40kg들이 3만5천280포대보다 각각 25kg과 1천312포대가 적었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40kg들이 1포대당 판매가격이 유기농 벼의 경우 품질에 따라 6만400원~7만6천800원에 거래돼 일반 벼 평균 5만4천원

에 비해 최소 6천 원에서 최고 2만2천 원이 높았다.

이에 따라 생산량이 적어도 생산액은 오히려 유기농 벼가 더 높았다.

210ha에서 생산된 유기농 벼 생산액은 23억3천만 원, 기존 관행 벼 생산액은 19억500만 원으로 유기농 벼가 4억2천500만 원이 더 많았으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유기농 벼 대비 판매가격은 40kg들이 1포대당 판매가격이 유기농 벼의 경우 품질에 따라 6만400원~7만6천800원에 거래돼 일반 벼 평균 5만4천원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광태 시장 출국

미주 지역 투자유치 활동



박광태 광주 시장이 미주 지역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박 시장은

‘2009 미주지역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미국 LA, 댤러스 지역에서 17일까지 LED(발광다이오드) 등 광(光)산업 분야 시장개척 활동을 펼친다.

박 시장은 이번 방문지와 행사장 등에서 오는 10월 9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도 흥보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벼도 보험 들 수 있다

농식품부 오늘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주곡인 ‘벼’에 대한 보험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모자 농가는 6월 말까지) 일선농협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벼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기존농작물 보험이 보장하던 태풍·호우·가뭄 등 자연재해 외에 방재가 어려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으며 이런 재해로 인해 감소한 수확량만큼을 보상해준다.

벼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줄 경우 수확 감소 보험금을, 모내기 후 20일 내 야생동물 피해로 다시 모내기를 할 경우 재이앙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삭이 폐기 전 벼의 70% 이상이 고사해 경작을 포기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하려 할 때는 수확 감소 보험금 대신 경작 불능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가입금액의 80% 또는 70%를 보험금으로 주는 두 종류 상품이다. 각각 보험료의 50%, 75%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며 경작 면적이 4천㎡ 이상인 농가만 가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전남지역 벼 줄무늬 잎마름병 ‘비상’

전남지역에서 벼 바이러스 병의 원인이 되는 매개충 애벌구의 보독충률이 높아져 벼 줄무늬 잎마름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의 벼 생산지 각각 210ha에서 나온 생산량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기농의 경우 기존 관행농법보다 생산량은 다소 적었으나, 판매가격은 월등히 높고 판로도 안정적이어서 농가소득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러나 애벌구의 보독충률(병을 옮기는 벌)은 애벌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은 지난해 평균 0.7%에서 0.1%로 크게 높아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농자리 설치와 어린묘 유태시기에 방제약제를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26억3천만원의 방해충 방제사업비를

보이고 있다.

보독충률이 높으면 벼 줄무늬잎마름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단 발생하면 회복되지 않고 피해가 심할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도내에는 해남 1천80ha, 신안 1천550ha, 진도 1천20ha, 강진 280ha, 완도 24ha 등 서남해안지역 총 4천721ha,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 2.5%에서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겼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농자리 설치와 어린묘 유태시기에 방제약제를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26억3천만원의 방해충 방제사업비를 들어 지난해 대량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창고 임대**

▶ 광주 광산구 안경동 하남산입단지내 ◀  
건물 9,862㎡ (즉시 입주 가능)  
• 냉장냉동설비 860t / 시무실 370㎡  
• 3단핵설비 / 21대 차량접수(2.5톤 기준)  
• 층고 : 7 m  
• 수전면적 : 850kw

▶ 전주 덕진구 성덕동(전주·군산간 도로 접) ◀  
건물 997㎡ (바로 사용 가능)  
• 대지 7,909㎡, 참고 분할임대 가능  
• 주차 공간(15대)  
• 인접지역 이동음이(군산, 김제, 익산)  
• 풍력발전소에 허가(2009년 2월 15일)

02-589-3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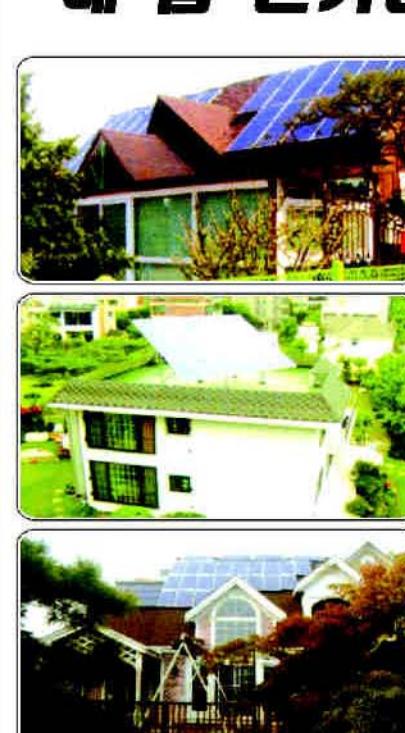
**투자자 모집**

- 월 2부 수익금 지급
- 확실한 담보 130%
- 안전보장, 수익보장, 비밀보장
- 최소 5,000만 원 이상 투자 가능

■ 서강파이낸셜 ☎ 062) 653-7500

**200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 무상보조금 60% 신/청/접/수**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시 전기요금의 80% 이상 절감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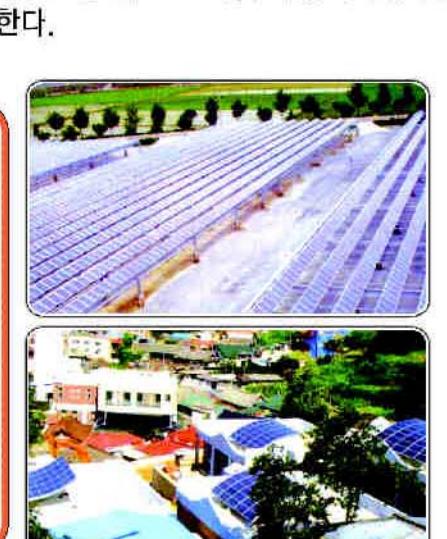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태양광 분야)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계통연계형 3kWp이하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설치효과

월 사용량이 480kWh인 주택의 전기요금이 설치 전 103,660원/월 설치 후 19,070원/월 평균 80% 이상 전기요금을 절감!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48년의 전통! 오랜 경험의 헤아릴 수 없는 값은 치른 보물이다!=

**7·9급 공무원 전직렬**

**을 적증 문제풀이 4주 원형**

행교 세관감법 검마찰 교보 보간 복소기 정 행무서 사원 활약 공정호 건호자 방술 5년간 소방인력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인 원 (국가기 8급 2320명, 7급 600여명 풀체)
- 시험일: 저번기 5월 23일, 7급 9월 26일 시행
- 시험일: 저번기 9월 26일, 7급 9월 26일 시행

개 강 4월 15일(주·야 휴무일 제외)  
(현재상금 접수증)

= 無等은 옛 명성 그대로 강의 第一! 합격 “最多” 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

부동고시화원 www.mdgosi.co.kr

222-4560

**COSMOENG |주| 코스모이엔지** T. 080-7272-7000  
www.cosmo-solar.com TEL. 062) 528-3571-3 FAX. 062) 528-3574